



보도 일시	<전매체> 9. 28.(수) 15:00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평가과	책임자	과 장	이덕희 (044-204-7460)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남기동 (044-204-7462) 서윤주 (044-204-7466)

## 중소기업 지원·육성, ‘민간주도’로 본격 전환!

### -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 -

-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생존·유지’ 중심에서 ‘민간주도 혁신성장·성과창출’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 코로나19, 세계적(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 심층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 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위원 : (당연직) 기재부·국토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14명

(위촉직) 중기중앙회장, 산업연구원장 등 15명

이번 회의는 새정부 핵심 경제정책 방향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중소기업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논의사항) △ 민간주도 중소기업 기술개발(R&D) 확대 및 효율화 방안, △ ‘23년도 중소기업지원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 중소기업 지원의 민간주도 혁신성장 지향 개편 전략 등

이와 함께, 코로나19·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들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영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4개월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이제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역으로 자리잡도록 산업 생태계 재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서로 합심해 역량을 집중하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 수출규제 강화 등에 따라 가중되는 중소기업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을 포함해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련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육성대책은 전문가·기업인 현장의견 수렴, 관계부처 의견조율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 민간주도 중소기업 기술개발(R&D) 확대 및 효율화 방안 >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R&D 지원사업 대다수가 정부출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주도 중소기업 기술개발(R&D) 확대를 목표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방식 개편과 기업 신청 부담완화 등 기술개발(R&D)사업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했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한 기술개발(R&D) 지원, 제도개선, 산학연 협력 제고 등에 대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 202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 >

지난 5월 31일 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개선방향」을 구체화한 「2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평가방향을 중소기업 ‘생존·유지’에서 ‘혁신성장·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대상 사업도 기존 50억원 이상 사업에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기술·인력 등 각 사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신설, 심층평가를 위한 전문평가단 대면평가 도입 등 기존의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신(新)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초격차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1천개사를 집중 발굴·육성한다.

\* 초격차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세계(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혁신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아울러, 이번 심의회에서는 기술력·성장성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해 사업화 자금·기술개발(R&D)·용자보증 등을 연계 지원하고, 사업화 종료 후 투자유치·글로벌 실증 등 확대(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 < 민간주도 혁신성장 지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개편전략 >

정부는 ‘민간주도의 역동적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이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매출·고용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잠재력 있는 혁신기업에 정책자원 집중 지원, 데이터 및 성과에 기반한 정책자원 재배분 등 민간주도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고, 향후 논의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 기타 토의 >

중소기업들이 현재 직면한 어려움과 미래 신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원자재 수급난 해소를 위한 세계(글로벌)공급망 재편 및 물류체계 개편, 신(新)산업분야 혁신 중소기업들이 세계(글로벌) 시장진출 전진기지로 활용 가능한 세계(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 설치 목적**

- 중소기업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심의·조정을 위해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

**□ 심의회 구성**

- 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위 원 : 당연직 14명, 위촉직 15명
  - △ (당연직) 기재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공정위, 금융위 등 14개 부처 차관급
  - △ (위촉직)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장, 업계·학계·연구기관 대표 등

**< 위촉직 위원 현황('22.9월기준) >**

소 속	직 위	성 명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김기문
소상공인연합회	회 장	오세희
벤처기업협회	회 장	강삼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 장	이정한
산업연구원	원 장	주 현
중소기업연구원	원 장	오동윤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김남근
서강대학교	교 수	김용진
송실대학교	교 수	최자영
서울대학교	교 수	유병준
(주)다산네트웍스	대 표	남민우
(주)피씨엘	대 표	김소연
(주)플래너리	대 표	이나리
(주)띵스플로우	대 표	이수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승신